

국 어 (7 급)

(과목코드 : 014)

2024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말이 있는 것은?

- ① 네 껌냥으로 뭘 안다고 그래?
- ② 일을 하다 말았더니 기분이 웬지 찜찜하다.
- ③ 다리를 건다가 핸드폰을 웅덩이 속에 빠뜨렸다.
- ④ 그는 여지껏 본 적 없는 이국적 풍광 속에서 들떴다.

2. 다음 중 띄어쓰기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하늘이 맑군그래.
- ② 손이 그렇게 작은 지 몰랐다.
- ③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은 우리 셋 뿐이었다.
- ④ 쌀, 보리, 콩, 조, 기장들을 오곡이라 한다.

3. 다음 중 음운 변동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 ① 숨이불 → [숨니불]
- ② 잎 → [입]
- ③ 꽃 위 → [꼬뒤]
- ④ 걷고 → [건꼬]

4.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가 나빠져 임대료조차 못 내는 형편이다.
- ② 남의 무남독녀 고명딸을 데려갔으면 고생은 시키지 말아야지.
- ③ 붓을 보관할 때는 꼭 붓뚜껑을 씌워 놓아야 축이 손상되지 않는다.
- ④ 오늘은 내가 청소를 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정희의 말처럼 미상불 귀찮기도 하였다.

5. 다음 중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맞는 문장은?

- ① 잘 놀다가도 석형 애기만 나오면 저렇게 빠지고 다투니 언제 철이 들는지…….
- ② 울며 소매깃 부여잡는 낙랑 공주의 섬섬옥수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산할 때, 대장부의 흉리(胸裏)가 어떠했을까?
- ③ 품위 있는 주택가 한가운데까지 파고들 수 있었던 건 일본 상류층 자제들과의 폭넓은 교우 관계 덕이라고 으시대길 잘했다.
- ④ 점심때가 지나고 해 질 녘이 되어도 외할머니는 여전히 잠에서 덜 깬 듯이 흐리멍텅한 상태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6. 다음 중 감각의 전이 방법이 ㉠과 다른 것은?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 서정주, <문둥이>

- ①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아침이면, / 세상은 새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 ② 풀잎은 / 껍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 우리가 ‘풀잎’ 하고 그를 부를 때에는 / 우리들의 입 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 박성룡, <풀잎>
- ③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 있는 /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 분수처럼 흘러 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
- ④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 모아 뉘 아가의 / 작은 손아귀 안에 / 당신을 찾게 해 주십시오. - 정한모, <가을에>

7. 다음 밑줄 친 말 중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내가 해준 음식이 보기만 해도 배부르네.
- ② 올해는 늦더위가 유독 심할 거라니 걱정이야.
- ③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
- ④ 굳세어라 금순아! 당시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말이지.

8.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버
리면 억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얼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 ① 절제된 태도로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독은 순결한 내면을 위협하는 현실적 요소를 의미한다.
- ④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대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9. 다음 중 제시된 맞춤법의 O, X를 잘못 표기한 것은?

- ① 꺾꺾하다(O), 꺾재재하다(X)
- ② 헤매다(O), 헤메이다(X)
- ③ 찜찜하다(O), 찜찜하다(X)
- ④ 얹다랴다(O), 얹따랴다(X)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공통점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타자와의 관계 즉 소통으로 본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가 곧 즉자 존재이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존재가 아니다. 그저 살덩어리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야만 세계내적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 하이데거의 관점으로 사르트르의 개념을 풀어보면, 사물인 즉자존재가 곧 존재자이며, 인간인 대타존재가 곧 현존재다.

마르틴 부버는 내가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보았다. 부버에 따르면 ‘나’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에 하나의 단어 ‘나(I)’로 표기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부버는 ‘나’를 두 종류로 구분해서 부르자고 제안한다. 사물을 대하는 ‘나’는 ‘나-그것(I-it)’으로, 사람을 대하는 ‘나’는 ‘나-너(I-thou)’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내가 목이 말라서 물병을 집어 들 때 내 존재의 성격은 ‘나-그것(I-it)’이지만 내가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내 존재의 성격은 ‘나-너(I-thou)’가 된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소통을 한다는 뜻이다. 내가 진정한 ‘나-너(I-thou)’가 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 즉 상대방을 ‘사람’으로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소통이라는 행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보다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선행해야 한다.

- ① 하이데거의 개념에서 존재자는 사물, 현존재는 인간이다.
- ② 대화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윤리적인 행위이다.
- ③ ‘나’라는 존재의 성격은 내가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 ④ ‘나’라는 고정적 실체가 우선 존재하고 그다음에 사물이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11. 다음 밑줄 친 말 중 한자어가 아닌 것은?

- ① 어차피 갈 것이라면 당장 가는 게 좋다.
- ② 그는 자기 일은 물론이고 남의 일까지 챙긴다.
- ③ 그는 귀동자로 커서 도대체 집안일을 거들 줄 모른다.
- ④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넛동생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12.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드라마에서는 ()의 전형을 보여 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 이들은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는 동료, 친구는 물론 가족을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

- ① 居安思危
- ② 見利忘義
- ③ 濫竽充數
- ④ 磨斧作鍼

13. 다음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형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서 갑자기 수많은 새떼 무리가 일제히 솟구쳐 올랐다.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는 죽히 됴 직했다. 그 날갯짓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 인간이란 게 알구 보든 저 하찮은 ㉠미물보다도 더 매웁할 때가 있는 것 아임둥? ㉡저네들이 그토록 자유롭게 넘나들던 철조망을 반세기가 넘도록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하지만 봄세. 저 새들이야 날개가 있으니까니 통일전에도 저 녹슨 철조망 위를 맘대로 넘나들었을 거 아임둥? 하지만서두 우리 ㉢인간들이 철조망을 걷어치우니깐 허공을 나는 ㉣그들의 날갯짓이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소?”

나는 그의 말뜻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만했다.
- 김소진, <목마른 뿌리>

- ① ㉠ 미물
- ② ㉡ 저네들
- ③ ㉢ 인간들
- ④ ㉣ 그들

14.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우리나라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의의가 있다. 국내적으로 초광역권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확산, 지역 차별화와 청년인구의 이동 등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다.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 집중은 역으로 비수도권 지역경제 침체, 인재 유출, 지역대학 붕괴, 심지어 지방소멸 등 지역 위기를 악화한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도권의 승자독식 도시화(winner-take-all urbanism)가 더 강화된다. 비수도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 변동에 취약하며, 지역의 청년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고 장기적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경제, 행정, 문화, 사회기능을 공간적으로 광역화하여 통합하려는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

초광역권은 초국가적 차원에서 강하게 연결된 공간 결절점이며, 글로벌 시스템의 엔진으로 기능한다. 초광역권은 글로벌 네트워크 내 특정 지역들이 더 큰 도시-지역의 스케일로 확장·재구조화된 것으로, 서로 높은 연결성과 함께 국제 경쟁력이 큰 공간 잠재력을 지닌다. 신지역주의와 지역분권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간구조는 과거 정치나 문화의 지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뀌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아시아는 블록 경제권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보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분권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① 초광역권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
- ② 초광역권 전략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지역 내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 ③ 초광역권 전략은 수도권의 승자독식 도시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 ④ 초광역권 전략은 경제, 행정, 문화, 사회기능을 공간적으로 광역화하여 통합하려고 한다.

15. 다음 문장의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 승지는 ㉠ 별별 야단을 다 치며 집 안 망할 자식이 생겼다고 화를 내었다.

- ① 콩 튀듯 팔 튀듯
- ② 콩 본 당나귀같이
- ③ 콩 볶아 재미 내어
- ④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16. 다음 글 중에서 유추(類推)를 통해 주제문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 ① 음악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다. 전제적인 왕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일어난 파리의 시민들이, ‘라 마르세예즈’의 노래를 부르며 총검을 향하여 돌진한 사실을 보더라도,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지녔는지를 알 수 있다.
- ② 학문을 하는 목적과 방식의 응용이 사람마다 다르다. 학문을 하는 목적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체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자기 개인이나 자기 민족이나 나아가 인류 전체에 공헌하려는 데에 있을 수도 있다.
- ③ 예술은 공간 예술과 시간 예술로 나눌 수 있다. 공간 예술은 작품이 일정한 공간을 통해 표현되어 정지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시간 예술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앞부분이 사라지고 뒷부분이 나타나는 연속적 흐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 ④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에 따라 글의 형식도 달라져야 한다. 운동을 하는 데는 평상복보다 체육복을 입는 것이 편안하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야구 선수라 해도, 아이스하키 선수처럼 옷을 입고 스케이트를 신는다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17. 다음 중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 ① 진이가 칭찬을 들었다.
- ② 미나가 미라를 잡았다.
- ③ 나무에 열매가 열렸다.
- ④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친다.

18.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한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열정과 역동성이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며, 심지어 모순되거나 이율배반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을 세계에 유명하게 만든 ‘빨리빨리’의 극단적인 속도 추구의 모습은 전통적인 은근과 끈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낯설어 보인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적 심성이 타락했다거나, 혹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적 심성이라는 관점은 우리를 소극적인 모습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성격은 ‘열정과 역동’, ‘은근과 끈기’라는 두 극단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며 서로 반대되는 것의 ‘뒤섞임과 버무림’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의 두 기질이 마치 쉽게 뜨거워지지만 반대로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와 은근하지만 쉽게 식지 않는 뚝배기처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기질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은근과 끈기의 바닥에는 뜨거운 열정과 역동성이 용암처럼 흘러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정과 걱정은 다른 것이다. 금방 불같이 뜨거워지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식어버리는 걱정에는 없는 것이 바로 은근과 끈기의 일관성이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보여 주었던 ‘은근과 끈기’의 역사, ‘열정과 역동성’의 역사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것처럼 변증법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의 민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가 된 역사의 화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현재의 고통과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은근과 끈기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 ② 열정과 역동성은 쉽게 식지 않는 뚝배기와 같다.
- ③ 열정은 걱정과 구분되며 은근의 일관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은근과 끈기라는 관점은 우리 민족을 소극적으로 왜곡한 결과이다.

19. 다음 중 ‘합성어에서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넣어 준다’는 규칙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곗바늘
- ② 북엇국
- ③ 예삿일
- ④ 공뿔벌레

20.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꽤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찌부라진 눈,
 북어들의 뻗뻗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

- ①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계가 전도된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현대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연대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④ 무기력하고 경직된 자아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다.

2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
 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
 가 있었는데, 마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
 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
 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목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외로운 비취새 짝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내 인연 어딴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겨워 창에 기대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① 인물의 비과학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②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정서는 시간적 배경과 관련되어 표현되고 있다.
- ④ 대상에 빗대어 인물의 정서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22. 다음 중 상황에 맞는 표현은?

- ① (부모가 자식에게) 애, 할머니 보러 가자.
- ② (역사책에서) 충무공은 뛰어난 전략가였다.
- ③ (교사가 학생에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④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둘째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하신대요.

2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해 가을 구월 초순에 상감이 승하하시고 세자가 19세로 즉위하니 연소한 임금을 보필하는 이시백 재상의 높은 이름이 일국에 진동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하나는 평안감사를 하였고, 하나는 송도유수를 지냈는데 각각 애민의 정사를 하여 청렴하였다. 그 후 삼부자가 함께 조정에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자손을 교훈하여 부귀를 더하며 가문의 영광을 빛내니 세월이 흘러 이시백 공의 나이가 팔십이 지났다.

어느 해 가을 구월 보름께 달빛이 휘황하게 밝으므로 공이 부인과 더불어 완월대에 올라서 남녀 자손을 좌우에 앉히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던 중 공이 손수 잔을 들어 두 아들에게 주면서 뜻밖의 유언을 했다.

“내 소년 시절의 일이 어제 같은데 어느 사이 팔십이 지났으니, 세상일이 일장춘몽이로구나. 우리 부부는 세상 명분이 다 하였으니, 너희들과 영결코자 한다. 금후로 너희들 형제는 조금도 슬퍼하지 말고 자손을 거느리고 길이 영화를 누려라.”

그리고 모든 손자를 일일이 어루만지고 상을 물린 뒤에 부부가 나란히 누워서 자는 듯이 운명하였다.

상감이 이시백 공의 별세 소식을 들으시고 또한 비감하시며 예관을 보내어 영전에 조알하게 하고 부의를 후히 내리시는 한편 시호를 문충공이라 하고 박씨 부인에게는 충렬비를 봉하여 추증하셨다. 박씨 부인의 시비 계화도 상전을 따라서 역시 병 없이 자는 듯이 죽었으므로 이판서 형제는 더욱 비감하였으나 상례를 존절하여 입관 성복하고 길일을 택하여 선산에 안장하고 여막을 짓고 살면서 조석 곡읍으로 삼년 상례를 지성으로 모셨다.

- <박씨전>

- ① 보통 남성이 맡는 영웅적 역할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 ② 청나라에 짓밟힌 조선 민중들의 정신적 승리를 서사화하였다.
- ③ 힘이 약한 여성이 국가를 구하는 것은 체제 전복적인 의미이다.
- ④ 여성 주인공의 활약은 여성 독자들을 대리 만족시킬 수 있었다.

2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시의 근본비교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미지가 시의 구성분자인 이상 반드시 문맥을 형성한다. 문맥 없이는 구성분자로서 이미지는 존재할 수 없다. 시의 이미지는 전후 문맥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따라서 시의 의미 파악에는 문맥의 파악이 필수적이다. 시는 대개 하나의 이미지보다 여러 개의 이미지로 문맥을 형성한다. 문맥 가운데서 근본비교에 의하여 형성되는 문맥이 있다. 근본비교란 한 작품에서 다른 모든 비교들을 성립시키는 토대가 되는 비유다. 다시 말하면 어떤 두 사물을 근본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여기서 이와 관련된 다른 비교들이 파생되는 것이다.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뉘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김동명, <파초>

- ① 조국과 파초
- ② 밤과 겨울
- ③ 파초와 여인
- ④ 조국과 여인

25.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것은?

- ① 신설동 : Shinseol-dong
- ② 정읍시 : Jeongeub-si
- ③ 태평로 : Taepyeongno
- ④ 김포시 : Kimpo-si